

2014年 通卷 第三號

학생처 ‘대학 문화팀’ 과  
사학과 소속 소학회 ‘역사기행반’ 이 함께 하는  
“수원사랑 프로그램” - 화성 탐방 가이드

# 水原 華城



亞洲大學校 史學專攻 歷史紀行班



학생처 '대학 문화팀'과 사학과 소속 소학회 '역사기행반'이 함께 하는  
 "수원사랑 프로그램" - 화성 탐방 가이드

## <수원 화성>



### <답사 코스> (위 지도 참조)

창룡문 (P 1) → 동북노대 → 동북공심돈 (P 2) → 동장대 → 북암문  
 → 방화수류정 (P 3) → 화홍문 → 북동포루 → 북동적대 → 장안문 (P 4)  
 → 북서적대 → 북서포루 → 북포루 → 서북공심돈 → 화서문 (P 5) → 서북각루  
 → 서노대 → 서장대 (P 6) → 화성행궁 (P 7)

## 1. 들어가며...

화성 가이드 행사는 인문대학 사학과 소속 소학회인 역사기행반과 학교 대학 문화팀이 연계하여 신입생 대상 과목인 '대학생활과 진로'수강 내용 중 '수원사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세부 내용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화성탐방을 하는 것으로 특정 날짜를 지정하여 대학문화팀은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하고 역사기행반 회원들이 가이드를 해주는 방식으로 학우들에게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대학생활과 진로'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는 수원 소재 문화유산인 화성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며 수원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다. 화성을 탐방하면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흥미와 함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2. 화성의 역사와 특징

### (1) 화성 축성의 역사적 배경

현재 수원시 구역은 정조가 화성을 축성하기 이전에 있던 수원읍과는 다른 곳에 위치해 있다. 본래 이전의 수원읍은 현재 화성시에 있었으나 1789년(정조 13) 정조가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양주 배봉산에서 원래 수원읍이 위치해있던 화산(華山)으로 옮기면서 지역 주민들은 현재의 팔달산 아래로 이주하게 되었다.

위에서 말한 것 처럼 화성 축성의 직접적인 배경은 사도세자의 묘를 옮기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나 단순히 무덤 이전에 따른 도시 건설이라기보다는 정조의 치밀한 준비와 정치적 목적 아래 이루어진 사업이었다. 정조의 정치적 목적은 강력한 왕권 성립에 있었다. 당시 정조가 왕위에 오르던 시기는 왕권이 크게 약화되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왕위에 오른 정조는 신하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강력한 왕권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만들고 그동안 정권에서 소외되었던 남인 세력을 등용하는 동시에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 바로 화성 신도시의 건설이었고, 화성은 왕권을 지탱해 주는 배후 도시로 조성되었다. 그와 함께 묘가 옮겨갈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재 수원화성으로 이주할 것을 명하였고 이주비를 제공하였다. 사도세자의 묘인 현릉원을 이장하면서 건설되기 시작한 화성은 철저히 계획된 신도시였다. 경제적인 면에서 화성의 입지를 살펴보면 평지이면서 삼남으로 오가는 교통의 요지로 상업도시로서 융성할 수 있는 입지적 특성을 가져 정조는 화성이 본격적인 상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화성과 같은 대규모의 공사에는 많은 물자와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공사 계획이 철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화성의 설계와 구상은 당시 실학자인 다산(茶山) 정약용이 맡았고, 정약용은 당시 동서양의 기술서를 참고하여 조선에 있는 일반적인 성곽과는 다른 성곽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 (2) 화성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화성은 다른 여러 성들과는 다른 화성만의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화성은 전통적 지식과 기술에 중국으로부터의 외래적 지식, 기술이 종합되어 적용

됨으로써, ‘법고창신’<sup>1)</sup>(法古創新)과 같은 새로운 문화건설 방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영조대의 유성룡, 유형원이 제안하였던 축성방식 등 전통적인 것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 옹성과 벽돌 등 중국으로부터 배워온 북학(北學)의 기술도 적극 활용하였다. 동북각루에 전통적인 정자 모형에 추가적으로 중국식의 면모를 더하여 수원팔경 중 하나라 불리는 방화수류정이라는 이름을 얻은 모습은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둘째로, 화성의 모든 진행과정을 기록하고 정리한 엄청난 양임에도 불구하고 세밀한 자료를 볼 수 있는 화성성역의궤의 존재이다. 화성 축조에 참여한 백성들의 이름은 물론이고 참여한 백성들의 역할과 작업 내용 축조에 사용된 돌 하나 못 하나까지도 모두 기록하였으며 각 구조물에 대한 그림까지도 기록한 완벽한 자료라 볼 수 있다. 이 화성성역의궤 덕분에 화성은 많은 훼손과 파괴에도 불구하고 현재 화성의 많은 부분은 예전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게 복원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화성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로 화성은 특이하게도 적들의 직접적인 침략을 받은 적이 없다. 화성은 정약용을 필두로 하여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이 참여해 과학적인 방법과 치밀한 계획을 통해 만들어진 당대 지식인들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모든 구조물은 하나하나 다 쓰임새가 다르며 구조물마다 쓸모가 없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적의 공격에 대해 효율적이며 다양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당대 최고의 성곽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화성은 적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성벽을 지키기 위한 전쟁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다. 훼손과 파괴의 대부분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당시에 이루어졌으며, 그 마저도 현재 대부분 복원이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단계에 있다. 그럼 왜 굳이 그렇게 치밀하고 대단하게 건설한 목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직접적인 적들의 침략이 없었기에 현재까지 보존이 잘되어 결국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 (3) 화성의 복원과정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 - 축성 당시 ~ 19세기말

화성은 축성 이후 19세기에 주요한 수리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현종 때에 이미 화성의 성곽은 여러 곳이 파손되거나 무너져 대대적인 보수 작업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 시기에 화홍문과 북수문을 비롯해 매향교, 남창교가 다시 지어졌으며 팔달문, 방화수류정, 서장대, 창룡문 등이 전면적으로 수리되었다. 고종 즉위 후에도 화성행궁의 수리가 이루어지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기에 화성의 본래 모습을 지켜 나갈 수 있었다.

#### -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까지(1910~1950년대)

이후 일제강점기 동안 화성행궁은 파괴되고 성곽은 방치된 채 곳곳이 무너지고 훼손되었다.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기 전 이미 화성행궁은 근대식 병원으로 사용되었고, 얼마 후에 병원은 2층 건물로 개조되었으며 봉수당을 비롯한 행궁 중심부의 건물들이 철거되었다. 동북공심돈을 비롯한 여러 부분이 붕괴되었으며, 이에 연장선으로 시가지 또한 본래 모습을 크

1)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創造)한다는 뜻으로, 옛것에 토대(土臺)를 두되 그것을 변화(變化)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根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

게 상실하였다. 1930년대에 이루어진 도심지 가로 정비 사업으로 인해 구부러진 가로의 직선화로 가로변에 있던 유서 깊은 상점 건물들은 모두 사라졌으며, 가로 정비 사업은 남문 밖으로도 이루어져 남문 밖에 보이던 상점들도 본래의 모습을 잃었다.

1950년대에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수원은 전쟁의 중심지역이 되었고, 시가지에서 전투가 벌어짐으로 인해 성곽 일대가 폭격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장안문은 폭격으로 인해 문루 절반이 날아갔으며, 후에 장안문의 문루는 철거되었으며 홍예문만 남은 채로 한동안 존속하였다.

#### - 1970년대 이후 복원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1970년대에 들어서 화성은 정부의 지원 하에 본격적인 보수작업이 이루어졌다. 팔달문외에 화서문, 화홍문 등이 보수되었고, 장안문과 창룡문 문루를 비롯해 여러 부분의 복원 작업이 이루어졌다. 화성 복원에는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가 남아있어 다른 문화재들에 비해 더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었다. 화성성역의궤란 조선시대 화성성곽 축조에 관한 경위와 제도, 의식 등을 기록한 책인데 이 책이 남아있기에 화성에 관한 방대하고 상세한 자료가 기록되어 있었다. 예를 들자면 건물 하나하나의 형태와 치수는 물론 심지어 공사에 사용된 못의 숫자까지 기록되어있어 성곽의 복원은 거의 본래 모습에 가깝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화성성역의궤를 이용한 70년대 복원 정비 사업을 통해 화성은 옛 모습을 거의 되찾을 수 있었지만 남암문, 남공심돈을 비롯한 남쪽의 성곽과 시설물들은 남문시장의 형성으로 인해 복원을 하지 못하였고 현재는 성곽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다.

화성은 1997년에 유네스코(UNESCO)가 제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화성은 동서양의 발달된 과학적 특징이 통합된 18세기 동양 성곽을 대표하는 군사 건축물의 뛰어난 사례로 평가됨과 동시에 비록 역사가 200년이라는 짧은 시간이라도 성곽의 건축물들이 동일한 점 없이 제각기 다른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점과 화성성역의궤를 통한 완벽한 복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 3. 화성 내 구조물 소개

#### (1) 문

##### - 창룡문

창룡문은 성의 동문으로써 정조 19년(1703)에 건립되었다가 한국전쟁으로 문루가 소실되었던 것을 1976년 복원하였다. 이문은 돌로 쌓은 홍예<sup>2)</sup>문 위에 단층 문루를 세웠으며, 밖으로는 한쪽으로 터진 반원형의 옹성을 쌓아 성문을 보호하도록 하였는데, 옹성에는 가까운 곳과 먼 곳을 겨냥할 수 있는 총구를 내었다.



▲ 창룡문

##### - 장안문

화성의 북문으로 건립되었다. 장안문의 이름은 중국의 옛 당나라 시대의 수도가 장안이었는데 그 때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한다. 정조가 그 때와 같이 태평성대를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북문의 이름을 직접 장안문이라 칭하였다. 하나의 홍예문 위에 2층 누각을 올리고, 바깥쪽으로 원형 옹성을 갖추었다. 성벽 위에는 안팎에 총구를 갖춘 여장이 있고 홍예 위에는 오성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5개의 구멍을 갖춘 큰 물통으로, 적이 성문에 불을 지를 때 이를 끄고,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문 좌우로 성벽이 이어지며, 문에서 53보 되는 곳에 각각 적대가 마련되어 있다. 이 문은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성문 형태를 취하였고, 규모나 구조는 조선 초기에 세워진 서울 남대문과 매우 비슷한 외관을 갖추고 있다. 남대문에 비해 좀 더 새로운 것은 옹성, 적대와 같은 방어 시설을 갖춘 것이 특색이다.



▲ 장안문

##### - 화서문

화성의 서문으로 건축된 화서문은 화서문과 창룡문은 동일한 형태로 지어졌다. 화서문의 누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건물로서 창룡문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장안문이나 팔달문은 이층으로 거대한 규모의 문을 만들었는데 비하여, 화서문과 창룡문은 단층 문루를 세워 소박하게 하여 작은 문처럼 만들었다.



▲ 화서문

2) 무지개 모양. (= Arch)

## (2) 수문

### - 화홍문(북수문)

사적 제3호 화성에는 남북으로 수원천이 흐르고, 성과 만나는 곳에 두 개의 수문을 만들었으나, 남수문은 홍수로 유실되고 화홍문만 남아 있다. 이 문은 정조 19년(1795)에 완성되었으나, 1922년 7월 대홍수로 유실되었던 것을 1932년 복원하였다. 7개의 홍에 돌다리 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통로를 두고 누각을 세웠다. 수문을 통해 쏟아지는 물보라에서 피어나는 무지갯빛이 화홍문을 한층 아름답게 하는 것을 [화홍관창(華虹觀漲)]이라 하여 수원팔경의 하나로 꼽는다.



▲ 화홍문

## (3) 장대

장수가 성 주변을 조망하면서 장병들을 지휘하는 곳이다. 장대석으로 대를 쌓고 세벌의 계단을 마련한 뒤에 또 한 대를 놓아 그 위에 2층 지붕의 건물을 세웠다. 화성에는 동장대와 서장대로 두 개의 장대가 있다.

### - 동장대

동장대는 화성의 동쪽 넓은 곳에 위치해서 군사를 훈련시키는 연병장 구실을 하였다. 이곳은 성 밖을 감시하기보다는 주변 공지에서 군사를 훈련하고 지휘하기에 알맞았다. 동장대는 군사들의 훈련을 지휘한다는 뜻을 살린 '연무대'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 동장대

### - 서장대

서장대는 팔달산 정상에 있는 건물로 성 안팎을 두루 살피면서 군사들을 지휘하는 곳이다.

서장대는 2층 누각인데, 아래층은 사방을 개방하고 한 가운데 장수가 머물 수 있는 마루를 두었으며, 위층은 사방에 창살 달린 창을 내고 바닥을 깔아서 군사가 올라가서 주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서장대 앞 좌우에는 외간(桅杆)이라는 높은 깃대를 세웠다. 성안 사람들은 외간 끝에 걸린 깃발을 보고 군사 조련이나 특별한 행사 등 서장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 서장대



#### (4) 각루

각루는 성곽 가운데 주변을 조망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세워져 적의 동태를 잘 감시할 수 있는 요충지에 세워졌다. 또한 높은 위치에 건물을 세워 적을 감시하기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한 건물로서 화성에는 4개의 각루가 있다.

##### - 동북각루(방화수류정)

화성 동쪽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방화수류정은 수원 화성을 이루고 있는 4개의 각루 중 하나이며 수원 팔경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방화수류정이란 이름은 "꽃을 찾고 버들을 쫓는 정자"라는 뜻이며 중국의 시에서 따온 문구라고 한다. 원래의 각루의 목적보다도 실제로는 풍류를 즐기던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정자나 각루가 목조인데 반해 동북각루의 경우 벽돌과 목조가 같이 쓰였다.



▲ 방화수류정

#### (5) 공심돈

공심돈은 '속이 빈 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적의 동태를 감시하는 망루의 역할을 하였다. 조선시대 성곽 중에선 유일하게 화성에만 있는 시설이다. 공심돈은 3층 구조를 두고 그 위에 군사들이 몸을 감추고 머무는 별도의 집을 갖추었다.

##### - 동북공심돈

벽돌로 쌓은 둥근 벽체가 안팎 2층으로 되었다. 내부에는 가운데층과 3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둥근 성벽을 따라 둥글게 나선형으로 이어진다. 이런 특수한 구조 덕분에 동북공심돈은 '소라각'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서북공심돈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 동북공심돈

##### - 서북공심돈

화서문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다. 성벽의 일부를 약간 밖으로 돌출시켜 치성을 만들고 그 위에 벽돌을 가지고 3층의 망루를 세우고 망루 꼭대기에는 단층의 건물을 올려 군사들이 머물 수 있도록 했다. 각 층마다 군사들이 밖을 내다보면서 화포로 공격할 수 있는 구멍(총안)을 내었다.



▲ 서북공심돈

## (6) 적대

성곽 중간 중간에 간격을 두고 성벽보다 높은 대를 쌓아서 창이나 활, 화살을 비치해두고 적의 동태를 감시하는 성곽 시설물이다. 현재 화성에는 장안문(북문) 동쪽과 서쪽에 각각 북동적대와 북서적대가 있다.



▲ 북동적대



▲ 북서적대

## (7) 노대

장대 옆에 노대라는 높은 대를 두었는데 이곳에서는 군사 명령에 따라 특정한 색깔의 깃발을 흔들어서 명령을 전하기도 하고, 또 쇠뇌라는 큰 화살을 날리기도 하였으며 그 위로 여장을 설치하였다. 서노대와, 동북노대가 있다.



▲ 동북노대



▲ 서노대

## (8) 포루(砲樓)

포루는 돌출시킨 성벽의 내부에서 적을 공격하도록 한 군사 시설물이다. 내부를 3개 층의 공간으로 나누고 각 층에 군사를 머물게 했는데 특히 3층에는 불랑기(佛狼機)를 설치해서 포(砲)를 쏠 수 있도록 하였다.

## (9) 포루(鋪樓)

포루는 치성위에 군사들이 몸을 숨길 수 있도록 지은 집이다. 치성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위치마다 포루를 세웠다. 화성에서는 성벽을 돌출시킨 치성이 8군데, 치성 중에 포루를 세운 곳이 5군데이다. 또한 공격시설 없이 단지 군사가 머무르는 집을 포사(鋪舍)라고한다. 성벽에 매복한 군사가 포를 쏘아 신호를 하면 성 안 포사에 있는 군사는 깃발이나 포로써 그 신호를 성안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다.

## (10) 암문

사람이나 가축이 통과하고 양식 등을 나르도록 깊고 후미진 곳에 적이 알지 못하는 출입구를 낸 문. 누각도 없고 문의 크기도 말 한필 드나들 정도로 좁다. 화성에는 모두 5개의 암문이 있다.

## (11) 봉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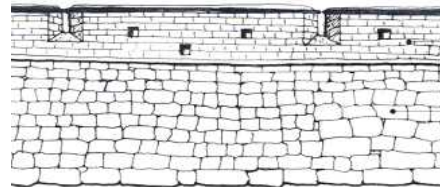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시 봉화를 피우는 구조물이다. 서해안에서 오는 햇불 신호를 받아 용인으로 전달하기 편리하도록 동쪽에 세웠다.

## (12) 성벽과 성벽 관련 시설물

### 1) 여장과 타구

#### - 여장

성채 위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낮게 쌓은 담을 말한다. 화살을 막기 위한 타구와 구간마다 움푹한 타구가 있고 총이나 활을 쏘기 위한 총안을 두는 경우가 있다.



▲ 여장

### 2) 총안과 현안

#### - 총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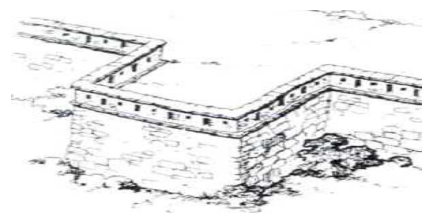
좁은 구멍을 내어 밖에서는 안으로 공격을 할 수 없게 하고 안에서는 밖을 향해 포나 총을 쏠 수 있게 하였다. 근총안과 원총안으로 나뉘는데, 근총안은 근거리에 있는 적을 공격할 때 쓰이고, 원총안은 원거리 공격을 할 때 쓰인다.

#### - 현안

세로로 길게 파여진 홈으로 뜨거운 물이나 기름을 성 밖으로 흘려보내 적군의 접근을 막는 역할을 하며 치성이나 적대에 만들어졌다.

### 3) 치

성곽 요소요소에 성벽으로부터 돌출시켜 전방과 좌우 방향에서 접근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한 요새로써凸모양으로 만들었다. 여장을 쌓고 3명에서 원총안과 근총안을 각 면에 내고 성벽 정면에 현안을 두어 적의 성 밑 접근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화성에는 총 8개의 치성이 있다



▲ 치성

## .화성행궁(華成行宮)

**행궁** : 왕이 지방에 행차할 때 머무는 임시 처소

\*기능상의 행궁 분류

- 1) 전란시 난을 피하기 위해 머무는 곳  
예) 남한산성의 광주행궁, 북한산성의 양주행궁, 강화행궁
- 2) 온천지 등에 휴양을 위하여 행차하여 머무는 곳  
예) 온양행궁
- 3) 지방의 능에 참배하러 갔을 때 머무는 곳  
예) 화성행궁

화성행궁은 정조가 자신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영우원)에 참배(전배)하러 왔을 때 머물던 곳이다. 이 영우원은 팔달산 아래인 구수원으로 옮기고 현릉원으로 이름을 고쳤다. 정조는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이곳에 참배했다고 함.

### 화성행궁의 건설 과정

처음 유수부 관아의 일부로 지어졌다가 화성 축성시 크게 증축  
조선시대 행궁으로는 최대 규모 ( 620여 칸의 건물 )

\* 칸이란 건물의 크기를 가늠할 때 사용하는 단위이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표현하며 가로 한 칸 \*세로 한 칸도 한 칸이라 표기한다.

표기법 예) 가로3칸 세로2칸의 누각 = 6칸의 누각

### 화성행궁의 파괴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화성행궁은 낙남헌만 남기고 모두 없어짐. 일제강점기에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인 자혜의원이 행궁 터에 들어서면서 건물이 철거됨. 이후 민가와 경찰서 등 여러 건물이 더 지어지며 행궁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1990년 병원건물을 이전하고 2002년에 현재의 화성행궁의 모습으로 복원 완료.

### 건물이름의 의미

정조는 기존 건물의 이름을 모두 고쳤으며 새로 지은 건물에는 어머니에 대한 마음과 자신이 거쳐하는 행궁의 위상을 고려해 이름을 붙였다.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와 관련된 건물로는 봉수당, 장락당이 있다.



<화성행궁 배치도>

설명코스 : 신평루 - 집사청 - 좌익문 - 중앙문 - 봉수당 - 장락당 - 경룡관 - 낙남헌 - 유여택 - 비장청, 서리청 - 남군영

### A. 신평루

신평루는 화성 행궁의 정문으로 처음 이름은 진남루라 하였다. 정조는 신평루로 고치라고 명하여 조운형으로 하여금 다시 편액을 쓰게 하였다. '신평'이란 이름은 한 나라 고조가 '풍 땅은 새로운 또 하나의 고향' 이라고 했던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정조에게 있어 화성은 고향과 같은 고장이라는 의미로 편액을 걸게 한 것이다.

### B. 좌익문

좌익문은 중앙문 앞에 있는데, '좌익은 곧 곁에서 돕는다'는 뜻이다. 내삼문을 도와 행궁을 지키는 중삼문이다.

### C. 중앙문

중앙문은 궁궐 건축의 삼문 설치 형식에 따라 행궁의 정전인 봉수당을 바로 앞에서 가로막아 굳게 지키는 역할을 하는 내삼문이다.

### D. 봉수당

봉수당은 화성 행궁의 정전건물이자 화성 유수부의 동헌 건물로 장남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조가 혜경궁 홍씨(어머니)의 회갑연 진찬례를 이 건물에서 거행하며 혜경궁의 장수를 기원하며 '만년의 수를 받들어 빈다'는 뜻으로 봉수당이라 명했다.

### E. 경룡관

장락당의 바깥문으로 사용한 부속 건물. '경룡'이란 제왕을 상징하는 큰 용을 뜻하는 것으로 당태종이 거처한 궁궐 이름에서 따 왔다.

### F. 장락당

혜경궁의 만수무강을 기원하였던 정조는 한나라 태후의 거처였던 장락궁의 이름을 따 행궁의 내전인 장락당의 편액을 직접 써서 걸었다. 봉수당과 연결되어 있음.

### G. 유여택

유여택은 평상시에 화성유수가 거쳐하다가 정조가 행차시에 잠시 머무르며 신하를 접견하는 건물이다. 원래 은약헌은 증축하면서 유여택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주나라 천명을 받아 나라를 크게 하고 집을 주었다는 데서 따온 것으로 정조의 입장에서는 화성 유수를 임명하여 내려보내는 곳이라는 의미가 된다.

### M. 비장청 / L. 서리청

화성 유수부의 비장(지방관이 데리고 다니던 막료)들이 사용하던 건물이 비장청이며 서리청은 문서의 기록 및 수령, 발급을 담당하는 아전인 서리가 사용하는 건물이다.

### J. 남군영

기마병이었던 친군위가 100명씩 지냈던 건물이다. 맞은편인 북쪽엔 북군영이 위치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동욱 ,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화성 , 돌베개, 2002

신영훈 , 수원의 華成 , 조선일보사, 1998

이종학 , (세계문화유산)'華城' 제이름 찾기까지 , 사예연구사, 1999

최준식 외 , (유네스코가 보호하는) 우리 문화유산 열두 가지 , 시공사 , 2002

조재송 , 꿈의 문화유산, 화성 : - 정조대 역사, 문화 재조명 , 경기사학회, 1997